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pousal Bereavement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송재현

선문대학교 통합의학과 가족상담

Jae-Hyun Song(rleo1113@naver.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를 사별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으며,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에 대해 처음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경험적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배우자 사별 경험을 한 결혼이주여성 7명을 심층면담하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은 20개의 주제묶음과 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5개의 범주는 '행복했던 결혼생활', '참고 살았던 결혼생활', '남편의 사별', '혼자 살아내야 하는 삶',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 사별 경험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사별 후 스스로 삶의 변화에 적응해 가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이 사별 후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과 사회복지 지원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배우자 사별 | 사별경험 | 현상학적 연구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who lost their spouse,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empirical perception on the recently newly-focused issue, bereavement of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their perspective for the first time. For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even immigrant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death of their spouse and analyzed in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ence can be classified into 20 topics and 5 categories: 'happy marriage life', 'marriage life they had put up with', 'death of spouse', 'life to be lived alone', and 'bearable life with hope'. The experience of bereavement was found to be a transition from the life in which they depended on their spouse in every aspect to the one where they make efforts to live an independent life adjusting to changes in their life after the loss. Based on this, the study will be a fundamental source of practical measures and social welfare support for them to live a better life in Korean society after their bereavement.

■ keyword : | Married Immigrant Women | Spousal Bereavement | Bereavement Experience | Phenomenological Research |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급증한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결혼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결혼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71.4%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나타났다[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는 한국사회의 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해법[2]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한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그 예이다. 국제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가족 간 불화 및 부부갈등, 한국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 한국인 남편의 사망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중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은 2009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별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사별이 1,304명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에서 1.1%를 차지했으나, 2012년 4,870명으로 2.2%, 2015년 8,885명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에서 3.6%로 증가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사별이 2012년에 비해 82.44% 증가하여 이혼·별거 69.4% 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별의 높은 증가세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연령 차이가 많이 나고[3] 술을 즐기는 남편들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 의미 있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애사건이다[4][5]. 여성이 배우자를 사별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욱이 젊은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사별은 사별 후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6]. 자녀를 함께 양육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한 대상을 상실함으로 인한 슬픔과 우울

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무력감, 삶의 의욕이 없어짐,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공허감, 외로움 등 복잡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4][7-10].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재취업의 난관, 배우자와 연결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및 단절 등은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7][11][12].

이와 같이 배우자 사별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여성들에게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사별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13]의 연구에서는 이혼·별거와 사별을 함께 다루어 해체 경험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14]는 홍콩에 사는 중국이민여성들이 배우자 사별 후 실용적이고 문화 의존적 대처방법을 취했다고 했으며, [15]는 미국에 결혼 이주한 일본 배우자 사별 여성들이 아시아계 미망인으로서 소외된 공간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며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공동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에 이주한 배우자 사별 중국 여성들은 이주하기 이전 경험과 비교하여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16], 캐나다 토론토의 배우자 사별 중국 이주 노인 여성들은 외국 땅에서 미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독립을 위한 기회와 연결된다고 하였다[17].

이상에서 살펴본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남편 없이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외 선행연구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해 유추 해볼 수는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들과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별이나 이혼 등 가족해체를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자녀양육이나 교육 등의 어려움이 큼에도 각종지원이나 서비스에서는 혜택이 많지 않아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였다[13][18].

국제결혼 후 언어가 서툴고 모든 것이 낯선 문화로

인해 남편과 시부모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아이취급하며 [19],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 은행이나 마트, 시장, 학교, 병원, 우체국 등 일반적인 한국의 배우자 사별 여성들과 달리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 재산상속 문제는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은 일생에 다시없을 충격뿐만 아니라 혼자서 아이들과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맞게 되는 위기사건이다. 따라서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사별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를 사별한 후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한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배우자를 사별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현대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후설(Husserl)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인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고 대상자의 실체에 접촉하고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하므로 인간의 경험연구에 중요하다 [20]. 후설(Husserl) 현상학의 기본은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경험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21][22]. 이는 곧 우리의 근원적 세계, 생활세계, 또는 경험적 세계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현상학은 참여자의 직접 기술에 의존하고, 연구자의 선 이해를 괄호 속에 묶어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필요로 한다. 현상학적 환원은 괄호 치기(bracketing), 배제(ausschaltung) 또는 판단 중지(epoche)를 의미하며 연구자의 이론적 편견이나 선 지식이 참여자의 기술내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

함이다. 또한 본질(essence)은 ‘어떤 것이 그것이 되는 것’으로 후설(Husserl)은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본질직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성에 의한 방법으로 본질(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질직관은 자유변경을 통해 창조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떠올리며 산출해 보는 과정으로 가능한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어 이 자유변경 전체를 통해 산출된 것을 결합하여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이다[23].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진술한 맥락 속에 들어 있는 사실적인 본질구조와 의미를 알고자 한 Colaizzi[24]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 개인 경험의 속성보다는 연구 참여자 전체의 경험에 관한 속성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개입서비스나 이론개발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25].

### 2. 연구 참여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참여자 선정에 신중하였으며 표본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목적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 7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 후 배우자를 사별한 결혼이주여성으로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나이	출신국	결혼	사별	사별사유
참여자 A	31	베트남	2006	2016	심장마비
참여자 B	30	베트남	2006	2012	당뇨합병증
참여자 C	29	키르기스스탄	2011	2017	자살
참여자 D	39	필리핀	2006	2015	심부전증
참여자 E	32	베트남	2006	2016	간암
참여자 F	29	베트남	2011	2016	자살
참여자 G	38	베트남	2006	2009	농기계사고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자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참여자당 면담은 1~3회였고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담시간과 장소는 직장을 다니는 참여자들이 퇴근 후나 공휴일 쉬는 날 편한 시간에 센터 상담실이나 참여자의 집 또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1차면담에서는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되도록 가볍게 진행하였으며, 참여 도중 중단 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으로 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 임했다.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고,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해 내었으며, 셋째,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 형태로 재 진술 하였고, 넷째, 의미 있는 진술들에서 공통된 내용들을 묶어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다섯째, 주제를 다시 범주화 한 후 주제를 현상학적 구조적으로 기술하였다[21].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단위와 주제 묶음을 원 자료와 비교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반복해서 확인하였으며, 경험의 본질적 구조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 4. 엄격성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26]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의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2차면담과 추가 질문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 정리, 해석되었는지 재확인과정을 거쳤다. 둘째, 적용성에서는 연구 참여자

의 진술내용에서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관성의 충족을 위해 각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질적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를 여러 번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 이해와 연구자의 경험과 정서들을 포함한 주관과 편견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을 한국인의 관점이 아닌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며,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의 주제묶음과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5개의 범주는 '행복했던 결혼생활', '참고 살았던 결혼생활', '남편의 사별', '혼자 살아내야 하는 삶',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는 삶'이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

범주화	주제
1. 행복했던 결혼생활	1) 나이 많은 남편과 행복했음
	2) 가족들에게 사랑받음
	3) 남편이 친정에 돈 보내줌
2. 참고 살았던 결혼생활	1) 한국말 모르고 시댁식구 많음
	2)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한 힘들
3. 남편의 사별	1) 남편이 질병, 자살, 사고로 사망함
	2) 정서적 충격으로 명함
	3) 주변인이 됨
	4) 상속재산 때문에 갈등함
4. 혼자 살아내야 하는 삶	1) 민고 의지할 사람이 없음
	2) 혼자 살아가야 할 삶의 두려움
	3) 그래도 한국에 살고 싶음
	4) 시댁식구들과의 부정적 관계변화
	5)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짐
	6) 한국 엄마들과 다르게 키울까 불안함
	7) 살기 바빠 자신을 돌볼 틈이 없음
	8) 사람들의 도움으로 힘을 냄
	9) 아이들과 살기 위해 강해지기로 함
5.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는 삶	1)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 다독임
	2) 미래를 향한 기대와 꿈

## 1. “행복했던 결혼 생활”

### 1.1 나이 많은 남편과 행복했음

참여자들은 남편의 나이가 15살 이상 많았지만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사주며 참여자들에게 잘해주려는 남편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꼈다(참여자 A, B, C, D, E, G).

남편은 서른여섯 살 때 만났어요. 저는 20살 때요. 처음 결혼 할 때는... 둘이서 여행도 가고 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참여자 A)

저는 23살, 남편은 38살에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이 제가 적응 할 때 힘드니까 좀 많이 잘해줬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다 사주고 입고 싶다 하는 건 무조건 다 사줬어요.(참여자 C)

### 1.2 가족들에게 사랑받음

참여자들의 시부모와 남편은 낯선 한국에 온 며느리와 아내에게 잘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시어머니는 나이 어린 젊은 며느리가 예뻐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남편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외국인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해해서 해결해주려고 했다(참여자 A, B, F, G).

결혼생활은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았었어요. 아버님 어머니 같이 사니까 저도 식사 같은 거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랑도 받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도 잘해주셔서 괜찮았어요.(참여자 A)

한국말 못해도 이해 잘 해줬어요. 말 안 통해도 어떻게 물어봐서 다 해줬고... 그냥 집에 힘든 일 있으면 안 해도 애기 아빠 다 해줬어요. 그냥 밥 먹고 공부만 했어요. 놀기만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애기아빠 다 해줬어요.(참여자 G)

### 1.3 남편이 친정에 돈 보내줌

참여자들은 남편이 친정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을 알기에 남편의 이런 행동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남편을 더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참여자 B, C, D, F, G).

많이는 못 주지만 남편이 엄마, 아빠 생각나서 용돈도 부쳐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마음이 고마워서 행복했어요.(참여자 B)

결혼생활하면서 친정에 남편이 돈을 보내줬어요. 저는 아예 용돈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용돈을 아예 안 주고 지금도 안줘요. 신랑이 제일 좋았던 게 친정에 어려움 있으면 도와줘요. 시어머니 모르게... 그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건 신랑한테 감사했어요.(참여자 F)

## 2. “참고 살았던 결혼생활”

### 2.1 한국말 모르고 시댁식구 많음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알지 못해 시부모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명절에 많은 시댁 식구들의 방문은 며느리인 참여자들을 힘들게 했다(참여자 A, B).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시댁 식구도 많아서 어려웠어요. 말도 모르니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참여자 A)

한국말 몰라서 그게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이 말해도 이해 못했어요. 그때는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내가 아무 것도 몰랐었어요.(참여자 B)

### 2.2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한 힘들

참여자들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거나, 참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무능력한 것에서 많이 힘들어 하며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아이들을 생각해 참고 살았다(참여자 A, C, F).

힘든 거는 술을 많이 마시는 거요. 술 마시고 아이들한테 크게 소리 치고...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힘들어서... 남편이 일을 안 하니가 생활비도 없는 데... 일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우리 애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어요.(참여자 B)

신랑이랑 살면서 제일 힘든 건 대화가 안 되는 거보다 사람이 미래가 없어서요. 신랑이 성격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돈도 없어요. 또 성격 좀 너무 화가 많은 편이에요. 화 자주 내고 맨날 때렸죠. 여러 번 때리고 저도 집 여러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밤 자고 또 한밤 자고 또 다시 들어왔죠. 결혼이 행복한 것보다...그냥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애기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참여자 G)

### 3. “남편의 사별”

#### 3.1 남편이 질병, 자살, 사고로 사망함

참여자들의 남편들은 술을 즐겨 마시거나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아 질병이 있었으며(참여자 A, B, D, E)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거나 농기계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참여자 C, F, G).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119 부르고 병원 갔는데 심장이 멎었다고 해요. 호흡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참여자 A)

신랑이 자동차사고 났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조금 힘들게 하니까 불안해서 그런지... 겁이 나서 그런지... 경찰도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서 자살했어요. 농약 먹고...(참여자 F)

날씨가 더워서 밭에 물 주러 가가지고 남편 넘어져서 거기 있는 선풍기에 부딪혀서 바닥에서 배에 피 흘리고 쓰러져서 돌아갔어요.(참여자 G)

#### 3.2 정서적 충격으로 명함

참여자들은 남편의 사망에 대해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쓰러질 만큼 힘들거나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였다(참여자 A, B, C, D, E, F, G).

저는 울면서도 백 번 더 얘기했어요. 큰 병원 가자고..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마음 너무 아프고 그때 진짜 쓰러질라 그랬어요. 설 정신없었어요.(참여자 A)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사는 게 힘들지만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건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참여자 F)

#### 3.3 주변인이 됨

참여자들은 남편이 사망하고 난 후 자신은 뒤에서 남편의 장례를 지켜보아야만 했다. 한국의 장례문화도 잘 알지 못했지만 시댁가족들도 그녀들에게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장례를 같이 의논하며 진행하지 않고 소외 시켰다. 또한 가족의 역할에서 배제를 당하기도 하였다(참여자 A, B, C, D, E, F).

장례식 끝나고 어머니는 돈이 어떻게 들어갔다고 말도 없고 그냥 시동생이랑 시누이하고 의논하고 저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아서 섭섭했어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데.(참여자 B)

시어머니 장례식 때 우리 아들이 장손인데 상복 안 주고 시동생 아이들 장손이라고 상복 입혔어요. 다른 가족들이 왜 우리 아들 상복 안 입냐고... 왜 시동생 딸, 아들 상복 이렇게 입고... 우리 아들은 장손인데 안 입냐고... 그럴 때 나는 속상했어요.(참여자 D)

#### 3.4 상속재산 때문에 갈등함

참여자들은 남편이 사망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상속재산을 빨리 상속해서 자신들이 처분하려고 하거나,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주는 것을 꺼려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기도 하였다(참여자 A, F).

남편 장례 끝나고 시댁에서 재산 같은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상속은 지금 안 받는다고 했는데 시댁에서 직장까지 찾아와서 욕하고... 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상속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상속하라고.(참여자 A)

신랑 재산 있는데 신랑 재산 때문에 시누이랑 사이 안 좋아졌어요. 그거 신랑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랑 돌아갔으니까 저하고 애들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댁에서 그거 뺏기기 좀 그런가 봐요. 주기 좀 아까워서.(참여자 F)

#### 4. “혼자 살아내야 하는 삶”

##### 4.1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음

참여자들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려움에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싶어도 부탁할 곳이 없고 자신을 가장 지지해 줄 내편이 없어 힘들어 하고 있었다(참여자 A, B, C, E, F).

누구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찾으니까 없어요. 주변에서 없어요. 지금 혼자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참여자 A)

신랑 돌아가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내 옆에 내 편이 없으니까. 신랑 돌아가고 처음에는 외롭고 많이 힘들었어요. 신랑 돌아가고 나서 저 아예 아무도 없어요.(참여자 F)

##### 4.2 혼자 살아가야 할 삶의 두려움

참여자들은 문득 자다 깨어보면 사무치게 외롭고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할 삶이 막막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 걱정에도 잠도 오지 않는 두려움을 경험하였다(참여자 A, B, C, E, F).

이제 혼자니까 진짜 그 느낌 많이 들어요. 외로운 느낌...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뭐... 옆에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진짜 많이... 외롭죠... 무섭고 그래요.(참여자 A)

자다가 일어나서 애들 보면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저녁에 잠도 안 와요.(참여자 B)

##### 4.3 그래도 한국에 살고 싶음

참여자들은 시댁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모국에 가지 않고 힘들어도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참여자 A, B, C, D, E, F, G).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애기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힘들어도 신분증 다시 연장 계속하면 되니까... 남편 있을 때 힘들어서 애들 클 때까지... 그때 그러고 나서 베트남 가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국적

따서 아이들 키우고 싶어요.(참여자 F)

애기아빠 돌아가고 베트남 간다는 생각 안했어요. 저는 베트남 갈 생각 안하고 그냥 딸들 키워요. 한국에서 살아요. 베트남에 여행은 가도 거기에서 살 생각 없어요.(참여자 G)

##### 4.4 시댁식구들과의 부정적 관계변화

참여자들은 시댁 식구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남편이 있을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고 섭섭해 했다. 시댁 식구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 가끔 만나는 게 전부다(참여자 A, B, C, D, E, F).

시댁 형님들은 지금은 연락 없어요. 만약 집 매매를 하게 되면 도장 찍어 달라고 연락해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이제는 점점 멀어지죠. 도와주는 거 없어요.(참여자 A)

시댁에서 경제적인 도움 없어요. 돈 전혀 안줘요. 시동생한테 국적 딸려고 삼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삼천만 원 줄 테니까 이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도 끊자고.(참여자 D)

##### 4.5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짐

참여자들은 남편 사별 후 형편이 더 어려워 졌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에 먹고 사는 걱정을 먼저 해야 했다(참여자 B, D, E, F, G).

힘들죠. 남편이 없으니까 생활하는데 더 힘들어요. 직장을 다녀야 애들도 키울 수 있어요. 농사도 지어야 하고... 지금은 남편 없으니까 밥 벌어먹는 것만 생각해요.(참여자 E)

##### 4.6 한국 엄마들과 다르게 키울까 불안함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어려 밖에 혼자 데리고 나가기 어려웠으며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과 한국 엄마들이 키우는 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참여자 B, C).

아이들 키우면서 한국아이들하고 다르게 키우진 않을까 불안했어요.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든요. 저의 나라 문화랑 여기 한국 문화랑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키우는 방식이랑 한국 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힘들었어요.(참여자 C)

#### 4.7 살기 바빠 자신을 돌볼 틈이 없음

참여자들은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퇴근하면 아이들 돌보는 것과 집안일을 해야 하니 바쁘고 힘들어 슬프고 외로울 틈이 없다고 하였다(참여자 A, B, D, E).

바쁘잖아요. 바쁘게 사니까.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애들도 봐야 되고... 집안 일 해야 되고... 그럼 시간 금방가요. 그러면 피곤해서 자야 해요.(참여자 A)

남편 장례 끝나고 슬프고 힘들고 외롭다는 거 아예 모르죠. 살려면 직장 다녀야 하니까. 애들하고 살려면 직장 구해야 하니까요.(참여자 B)

#### 4.8 사람들의 도움으로 힘을 냄

참여자들은 남편 사별 후 변화된 삶 속에서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내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위로를 해주는 것에서 살아낼 힘을 얻고 있었다(참여자 A, B, C, E, G).

저 항상 누가 챙겨주고... 옆에 보호자가 있는 느낌 들어요. 어제도 계란이 문 앞에 있었는데 키우는 닭이 낳는 계란이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도와준다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때는 힘나요.(참여자 A)

직장에 베트남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남편 돌아갔을 때 많이 위로 해주고 열심히 살라고 응원도 해 줬어요.(참여자 E)

#### 4.9 아이들과 살기위해 강해지기로 함

참여자들은 한국에 시집와서 울 일이 많았는데 남편을 사별 하고 난 후에는 더 울 일이 많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아이들과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는 울지 않고 강하게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였다(참여자 A, B).

저한테 애들은 그냥 전부예요. 애들 때문에 사는 거죠. 강하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공장 남자 직원이 남편 없다고 이상한 마음먹고 손도 만지고 건드리려고 해서 신고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리요.(참여자 B)

### 5.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는 삶”

#### 5.1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 다독임

참여자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다독이고 있었다(참여자 A, B, C, E, F, G).

힘들어도 애들 열심히 키우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 좀 대단한 것 같죠.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대단한 것 같아요.(참여자 F)

지금처럼 살아요. 애들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생각하고... 내가 나한테 그냥 너 잘하고 있다. 애기들 잘 키우고 있다. 칭찬하고 싶어요.(참여자 G)

#### 5.2 미래를 향한 기대와 꿈

참여자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어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었다. 하고 싶은 공부하기, 여행하기, 해보고 싶었던 것 하기, 당당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다(참여자 A, B, C, D, E, F, G).

저 꿈은 있어요. 어릴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잘했으면 학교선생님 했을 텐데... 애들 크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꼭 하고 싶어요. 공부 못 한 것도 하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못한 것도 다 하고 싶어요.(참여자 E)

애들 다 크면 여행가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돈 없어서 못 했는데 애들 다 크면 지금 못해 본 거 하고 싶어요.(참여자 F)

앞으로 40대는 국적 따서 당당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참여자 D)

## IV. 결론 및 논의

### 1.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사별하기 전의 결혼생활과 사별과정, 사별 후 적응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본질적인 내용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배우자를 사별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7명이었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20개의 주제를 조직화하고 '행복했던 결혼생활', '참고 살았던 결혼생활', '남편의 사별', '혼자 살아내야 하는 삶',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는 삶'의 5개 범주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생활이 지속 될수록 참여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결혼생활을 경험하였다. 언어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댁의 행사나 가족의례에서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힘든 경험과 남편과의 성격차이 및 경제적인 어려움, 음주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거나 참여자 F는 남편의 폭력으로 여러 번 가출을 하기도 하며 참고 견디는 결혼생활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어렵고 힘든 타국에서 남편이 힘들게 하여도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그냥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참여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도망가는 며느리, 아내, 엄마가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걸 감내하고 이겨내려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바뀌어야 할 때이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편 사별 후 시댁식구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를 당하면서 주변인이 되었다. 낯선 한국에 와서 모든 걸 의지하던 남편이 사망하고 난 후 참여자들은 시댁식구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댁식구들은 참여자들을 주변인 취급했다. 남편 장례식에서 장례비용이나 조의금의 내용에 대해 참여자와 의논하지 않고 시댁식구들끼리 의논해서 처리했다. 또한 참여자 D는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시동생이 자신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다. 시댁식구들

은 참여자들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었다. 참여자들은 남편 사별 후 엄청난 충격과 슬픔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시댁식구들에게 주변인 취급을 당하면서 더 상처받고 힘들어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배우자 사별 후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참여자들은 사망한 배우자로서 적합한 상속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식구들은 참여자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여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게 하거나 자신들이 임의로 처분하는 등 참여자들을 힘들게 했다. 또한 상속소기를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았다. 참여자 B는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업소를 믿을 수가 없었다. 시누이들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자 E는 시아버지가 시동생 몰래 집과 논을 이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동생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불안해했다.

셋째, 참여자들은 남편 사별 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자신을 대단하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자존감이 향상되고 독립심도 생겼다. 참여자들은 가장으로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며 혼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남편 사별 후 혼자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야 했으며 친구의 소개로 들어간 직장은 주·야간과 주말에 근무를 해도 월급이 많지 않았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도 빠듯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직장에 쉬는 날이 많지 않아 자녀교육과 돌봄에 어려움이 많았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 참여자들의 돌봄이 필요한데 참여자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할 때가 많아 자녀를 돌볼 수 가없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로 남편과 약속했고 자신들이 남편 없이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 때문이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꼭 보내고 싶고 잘 키우고 싶지만 외국에서 시집 온 자신들이 한국 엄마들과 다르게 키우진 않을까 불안하고 한국어가 부족하거나 학습이 뒤쳐져도 보살펴 줄 수가 없었다.

넷째,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당당한 한국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참여자 C, 참여자 D, 참여자 F도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남편을 사별한 후 어렵고 힘들어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살면서 자신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나 힘든 이웃을 돕고 싶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남편 사별 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부딪치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처음에는 친정이 어려워 한국에 국제결혼으로 시집을 와서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남편을 사별하고 난 후 시댁식구들에게 상처받고 힘들면서도 한국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 참여자들이 한국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참여자들도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 사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이 경험한 세계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의미를 구성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문화정책과 사회복지 실천방안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데 이것은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언어의 장벽과 한국문화 적응으로 힘든 경험을 하였다. 한국어 수준이 높은 외국인인 한국어 수준이 낮은 외국인과 비교할 때 문화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한국생활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한[28-30] 것과 같이 참여자들은 한국어 수준이 높지 않아 남편과의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한국어수업을 받으러 올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한국어방문지도 수업을 더 연장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험이나 인증 시스템 마련과 부부의사소통교육 및 시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단기성 및 일회성이 아니라 회기수를 늘려 서로 다른 문화를 알아가고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31]는 결혼이주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적절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댁식구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배우자 사별 후 상속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속문제의 어려움에 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 등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도 힘들어 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모국 언어로 법적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줄 법적 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이 간이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된다. 한국국적을 취득해 직장에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국적취득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 배우자를 사별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그 기간에 다시 체류연장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간이 귀화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축하여 하루빨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자들은 배우자 사별 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 C의 경우 시댁식구들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자녀 돌봄이나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2]의 연구결과와 같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아들을 버리고 가버릴까 걱정하며 참고 같이 살았지만 아들이 사망하고 난 후 시어머니는 사별한 며느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이라 언어소통을 문제 삼아 면접에서 탈락이 되어 취업이 어렵고, 임대아파트의 수혜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이사도 갈 수 없어 남편 사별 후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바꿔 모국에 가서 친

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직장에 다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사별할 경우 나이가 젊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 한부모 지원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 있는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33]은 배우자 사별 중년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반면, 중년 남성은 2-3년이 지나도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 자녀의 결혼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배우자 사별 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 복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 주거지 이전을 위한 전세 자금마련 대출 대상의 확대 및 자녀양육과 교육에 따른 부모교육,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엄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교육과 직업상담,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서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 돌봄 지원사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직장을 설 수 없는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주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율을 높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은 남편 사별 후 충분히 슬퍼할 틈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은 사별 슬픔에 대한 기간을 6-8주에서 2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사별가족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35]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경험하는 상실감은 심리내적인 고통으로 상실의 문제를 오랜 시간 정리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경우 우울감 및 신체적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3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했으며 [35]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별 노인들이 지지 결여로

인한 외로움과 삶의 의미상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14]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별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별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가족들이나 친정, 친구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15]는 일본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문화적, 역사적인 문제들까지 얽힌 슬픔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았을 때 강력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던 것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유사하였다. 참여자들은 친구나 직장동료의 응원과 위로로 살아가는 데 힘을 내고 있었다.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을 사별하고 난 후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살아내야 할 걱정이나 상속문제, 서류문제 등으로 슬픔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고 이런 어려움이 쌓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어, 배우자를 사별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들의 정서적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상담개입과 자녀의 상담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을 통합적 자조모임의 형태가 아닌 배우자 사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공동체를 거점 단위로 결성하여 프로그램진행과 관리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지지체계 및 사회적 연결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37]가 밝힌 것과 같이 아내에서 미망인으로, 엄마에서 엄마와 아빠로, 파트너에서 다시 싱글로, 책임져야하는 것에서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슬픔에서 수용으로, 분노에서 체념으로, 두려움에서 더 강해짐으로, 혼돈에서 평화로, 희망이 없는 것에서 희망이 있는 것으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었다.

####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17년 혼인·이혼 통계, 2018.

- [2]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pp.57-80, 2007.
- [3] 홍달아기, 채옥희,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5호, pp.729-741, 2006.
- [4] 양복순, *중년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5] M. E. Cooley, “Bereavement care. A role for nurses,” *Cancer Nursing*, Vol.15, No.2, pp.125-129, 1992.
- [6] 강인, 최혜경, “여성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4호, pp.95-107, 1998.
- [7] 남인숙, “상배(喪配)여성의 상실위극복과 사회적응 과정,” 한국여성학, 제16권, 제2호, pp.175-204, 2000.
- [8] 장희선, 김윤정, “농촌여성노인의 배우자 사별 적응과정,” 한국노년학, 제31권, pp.939-967, 2011.
- [9] 최명민, 김가득, 김도윤, “자살로 사별한 노년기 배우자의 상실경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4권, 제1호, pp.76-105, 2016.
- [10] C. I. Murray, “Death, dying, and bereavement. Families and change,”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pp.173-194, 1994.
- [11] O. Gilbar and H. Ben-Zur, “Bereavement of spouse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72, No.3, p.422, 2002.
- [12] C. H. Ott, “The impact of complicated grief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at various points in the bereavement process,” *Death studies*, Vol.27, No.3, pp.249-272, 2003.
- [13] 윤동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해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7권, 제2호, pp.37-58, 2013.
- [14] P. Ng, W. C. Ho, A. Tsun, and D. K. Young, “Coping with bereavement of widows in the Chinese cultural context of Hong Kong,”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59, No.1, pp.115-128, 2016.
- [15] C. Saito, “Bereavement and meaning reconstruction among Japanese immigrant widows: Living with grief in a place of marginality and liminality in the United States,” *Pastoral psychology*, Vol.63, No.1, pp.39-55, 2014.
- [16] K. M. Bennett, Q. Chao, L. Roper, and V. Lowers, “(The deceased has left; the alive has to move on): Experiences of Chinese Widows in the UK,” *Death studies*, Vol.42, No.8, pp.498-507, 2018.
- [17] A. Martin-Matthews, C. E. Tong, C. J. Rosenthal, and L. McDonald, “Ethno-cultural diversity in the experience of widowhood in later life: Chinese widows in Canada,” *Journal of aging studies*, Vol.27, No.4, pp.507-518, 2013.
- [18] 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다문화 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연구보고서, 제2권, 2010.
- [19] 한건수,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pp.195-219, 2006.
- [20]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29권, 제6호, pp.1208-1220, 1999.
- [21]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22] 이종규, *질적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2006.
- [23] 신경림,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제12권, 제1호, pp.49-68, 2003.
- [24]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25] 신경림, “질적 연구 방법의 이론,” 상담 및 심리 치료학회동계연수자료, pp.5-22, 2001.
- [26] Y. S. Lincoln and E. G. Guba,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5.
- [27] 박미순, 황선영,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대한케어복지학, 제17권, pp.17-36, 2012.
- [28] 이승중,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연세교육학연구, 제9권, pp.157-176, 1996.
- [29] 최태일,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0] 박병금,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77-295, 2013.
- [31] 대한변호사협회, 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 세미나 자료집, 2015.
- [32] 박병금, 노필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의 가족적응 경험에서 나타난 부담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14권, 제1호, pp.250-265, 2014.
- [33] 박경복, 김분한, “중년남성의 배우자 사별경험,” 중앙간호학회지, 제4권, 제2호, pp.143-153, 2004.
- [34] E. Lindemann,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01, pp.141-148, 1944.
- [35] 이미라, “애도 개념개발-배우자 사별과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제7호, pp.1119-1130, 2007.
- [36] L. M. Daggett, “Living with loss: Middle-aged men face spousal bereavement,”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2, No.5, pp.625-639, 2002.
- [37] M. E. Lowe and S. E. McClement, “Spousal bereavement: The lived experience of young Canadian widow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Vol.62, No.2, pp.127-148, 2011.

저 자 소 개

송 재 현(Jae-Hyun Song)

정회원



- 2014년 2월 : 선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7년 2월 : 선문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가족상담(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

<관심분야> : 상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